

전통 성역할 수용해도 성취욕, 기대치는 높다

〈교육사회학 연구회〉 학술발표회서 심미옥 교수 주장

여학생들은 성취동기가 낮아 학업성취나 사회적 성취에 실패하게 된다는 것이 일반적 통념이다.

그러나 지난 6일 〈교육 사회학 연구회〉 학술발표회에서 심미옥(춘천교대) 교수는 '여자고등학생들의 성역할 인식의 배경과 수용, 거부과정'이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이 일반론에 반론을 제시했다.

심 교수의 연구결과에 의하면 전통적 성역할을 수용하는 학생들도 사회적 성취를 이루고자 하는 기대치가 높다는 것이다. 다만 이들은 전통적 성역할을 거부했을시 야기되는 갈등과 긴장을 '경험'을 통해서 체득하고 이를 회피하고자 한 것일 뿐.

예를 들어 '남녀공학에서 여학생이 학생회장이 될 수 있다'라는 견해에 대해서는 전통적 성역할을 수용하는 여학생들이나 거부하는 여학생들이나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 구체적 경험을 통해 대부분의 여고생들은 성역할을 수용 또는 거부하게 된다.

물론 일부 여학생들은 가정 내에서의 남녀 위계 관계를 학교에까지 확장하여 남학생이 총학생회장이 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비치기도 했다.

그러나 여성과 남성을 관찰할 수 있는 기회를 자주 가진 남녀공학의 여학생들은 여성의 능력과 기능성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고 있어 대단히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일 상에서 경험한 일들로 성역할 인식을 뛰어넘은 경우는 '학업성취'에서 더 강하게 나타난다. 학교 내에서는 성별보다 성취에 의해 개인을 평가하는 경향이 짙고, 능력에 따라 보상과 성취감이 확실하기 때문.

이렇듯 여학생들이 성취지향적 성향을 보이느냐, 보이지 않느냐는 것은 가정이나 학교에서의 구체적 경험을 통해서이다. 성역할을 거부하는 여학생들 주변에는 직업을 가진 어머니, 지도력이 있는 같은 학교의 여학생, 학업성취가 우수한 자기 자신, 남성에 의해서 독점되었던 분야를 개척한 선배 등의 유능한 여성상들이 있었다. 전통적 성역할을 극복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그들을 통해 확인하며 동시에 여성도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다는 자신감을 획득하게 된다는 좋은 예이다.

심 교수는 "어떤 기회가 열려져 있는가, 무엇이 가능한가, 어느 것이 이익이 되며 갈등을 피할 수 있는가 등을 현실에서 파악, 성역할 규범을 획득하는 여학생들인 만큼 취업구조변화나 사회구조의 변화는 대단히 시급한 사안"이라며 여학생들의 의식성장을 위한 교육적, 제도적 장치를 요청했다.